

전시전문가 양성 활성화 방안 연구

-전시전문 자격증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Plans to Vitalize Training of Exhibition Manager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Certificate System of Exhibition Management-

장은경

서울산업대학교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선임연구원

Jang, Eun Kyung

Senior Researcher , Design Lab. Science Culture Exhibi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전시전문자격 제도의 필요성

- 2.1. 전문자격증 설문조사
- 2.2. 시사점 및 기대효과

3. 유사 전문자격 사례분석

- 3.1. CEM(전시전문기획사) 자격제도 분석
- 3.2. 컨벤션기획사 분석 및 문제점

4. 전시전문자격증 구축방안

- 4.1. 전문자격증 개설 위한 선결과제
- 4.2. 로드맵 및 추진(안)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최근 전시산업은 종합적인 전략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국내 전시산업은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경쟁력이 미흡한 상태이다. 향후 전시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이를 제도적으로 인증해 줄 수 있는 자격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 양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전시전문 자격제도의 필요성은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 내용은 자격증의 필요성, 운영방식 및 주체에 관한 응답, 취득 후 업계의 활용방안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시사점 및 기대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전시전문 자격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둘째, 국내 상황에 맞는 전시전문자격증을 제안하기 위하여 유사 전문자격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외 CEM자격증 및 컨벤션기획사를 중심으로 문헌 및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외 자격증을 비교하여 현재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유사 자격증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시전문자격증 개설을 위한 선결과제와, 이를 반영한 로드맵 및 추진(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전시전문 자격증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전시전문 자격제도 도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사자격증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외국의 자격 제도를 연구하여 전시전문 자격증 제도의 로드맵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전시산업, 전시전문인력, 전시전문 자격제도

Abstract

Recently, though exhibition industry is developing into total strategic service industry, exhibition industry in Korea still has insufficient competitiveness compared with than in developed countries. For successful hosting and operation of exhibition for the future, it is needed to develop human resources equipped with professionalism and to introduce certificate system which can certify them systemat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vitalize training of professional exhibitionmanager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ertificate system which is needed to train professionals as follows.

First, questionnaires and telephone survey were conducted targeting practitioners in this industry in order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certificate system for exhibition management. Questionnaires were composed of questions asking the importance of certificate, answers on operating method and operating body and application in the industry after acquiring the certificate. Also, the necessity of certificate system for exhibition management was described by deducing implications and expected effects reflecting the needs of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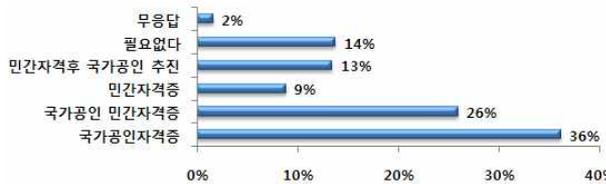
Second, in order to suggest certificate of exhibition management which is suitable to the country's situation, case study on similar professional certificates was conducted. By researching the literatures and conducting Internet research centering domestic and foreign CEM certificates and convention agencies and comparing domestic and foreign certificates, problems of similar certificates currently implemented in the country were analyzed. Third, based on such analytic results, fundamentals for introducing certificate of professional exhibition management practically were set by suggesting the first consideration for opening certificate of professional exhibition management, and roadmap and promoting plans by each stage. In order to settle and vitalize introduction of certificate system for professional exhibition management for the future, both continuous research and effort should be put forth for establishment and vitalization of

자격증 신설시 자격 취득 의사를 묻는 질문에 취득 의향이 높다는 비율이 42%, 보통이다의 비율이 48%, 낮다 또는 무응답의 비율이 10%로 자격증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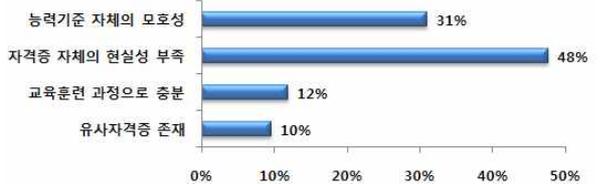
<그림1> 자격증 취득 의향에 대한 응답

전문자격증의 운영방식은 국가공인자격증 36%,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26%, 민간자격증 9%, 민간자격 후 국가공인으로 추진한다는 의견이 13%, 필요없다는 의견은 14%로 조사되었으며, 국가에서 공인받은 자격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림2> 전문자격증의 운영방향

상기 물음의 필요없다의 의견을 제시한 이유로는 자격검정의 한계로 인한 현실성 부족이 48%로 자격검정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그림3> 전문 자격증의 불필요성에 관한 응답

4. 전시전문가의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기관 ② 국·공립 교육기관 ③ 전시관련 협회
5. 전시전문 자격증 취득 시 취업을 위한 효용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① 유리하다 ② 보통이다 ③ 필요없다
6. 재직 중 전시전문 자격증 취득 시 대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유리하다 ② 보통이다 ③ 필요없다
7. 전시전문 자격증 취득자가 귀사에 입사 시 활용방안은?

① 전시기획자 ② 전시 디자인, 제작 ③ 사내 교육프로그램
④ 신입사원이므로 재교육 시켜서 활용 ⑤ 모르겠다

8. 전시전문 자격취득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의 활용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채용시 가산점 부여 ② 경력인증제, 수당 등 인센티브 제공
③ 전문교육기관의 교원자격부여 ④ 일정비율 고용의무화

자격증 운영을 위한 주체로는 정부기관 2%, 교육기관 24%, 전시관련 협회가 47%로 전시전문기관이 운영 주체로써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림4> 전문 자격증 운영주체

자격증 취득 후 산업계의 활용방안으로 취업을 위한 효용가치를 묻는 질문에 유리하다는 비율이 6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재직 중 전시전문 자격증 취득 시 효과에 관한 질문에는 52%가 유리하다고 답해 전문자격증이 업계에서 개인능력평가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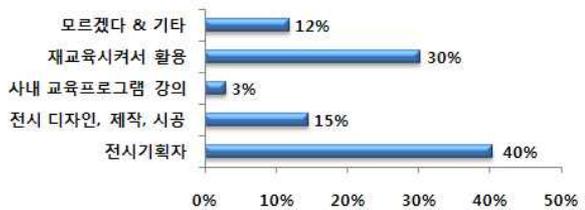


<그림5> 취업을 위한 효용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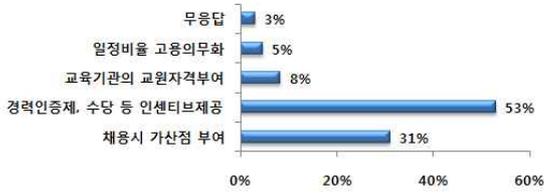
<그림6> 재직 중 자격증 취득 효과

자격증 취득자 입사 시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자가 40%, 제작이나 시공이 15%, 신입사원이므로 재교육시켜서 활용한다는 응답이 30%로 조사되었다.



<그림7> 자격증 취득자의 입사시 활용방안

자격증 활성화를 위해 취득자에게 부여 가능한 자격 활용방안은 채용시 가산점 부여가 31%, 경력인증제 및 수당 등 인센티브 제공이 53%로 자격 취득이 개인의 경력뿐 아니라 연봉 등에서 금전적, 제도적 처우가 보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조사되었다.



<그림8> 자격증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활용방안

2.2. 시사점 및 기대효과

2.2.1. 시사점

전시자격증의 설문조사 결과 산업계에서는 90% 응답자가 자격증 신설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전시전문 자격제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확한 운영방식과 주체가 결정 되어야 한다. 운영방식으로는 산업계 종사자들은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으로 운영되어야 그 효과가 높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운영주체로는 전시협회가 47%로 전시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둘째, 자격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인원에 대해 우대사항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의 효용성과 재직 중 자격증 취득 효과를 묻는 질문에 유리하다는 질문이 67%, 52%로 과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업계에서 자격의 활용방안으로는 경력인증제, 수당 등 인센티브 지급이 53%로 자격증 취득자에게 경력이나 연봉 등에서 확실한 처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셋째, 전문자격증 신설을 위해서는 유사자격제도의 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전시 자격증만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하며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인된 자격증을 확보해야만 한다. 전시업계 전반에서 자격증을 인정하고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 전문인력으로서의 전문성을 보장한다면 자격증 취득자는 명확한 인센티브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2.2.2 기대효과

전시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전시분야의 전문인력임을 인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급인력의 확보가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 자격제도는 전시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자격증이 활성화 될 경우 전시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전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며, 타 분야 종사자들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자격증 취득자는 실전형 전문인력이라는 인식을 부여함은 물론 전시관련 인력의 자질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계 전시인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3. 유사 전문자격 사례분석

3.1. CEM(전시전문기획사) 자격제도 분석

3.1.1. 현황

CEM(Certified in Exhibition Management) 자격은 1975년 IAEM에서 창설한 공인 자격증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전시 전문가 자격증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격요건은 초기수료와 재수료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초기수료는 전시 교육에 중점을 두며 자격요건으로 3년 동안 전시 산업에 종사하며 25점 이상의 수료 점수를 받아야 한다. 재수료는 서비스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격 요건은 전시산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마지막 수료 이래로 0.6 연속교육 학점을 받아야 하며, 초기 수료 시 점수가 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수업은 연중 이루어지고 온라인 강좌, IAEE 연차 총회 시 제공되는 수업, 각국 별 대행기관 등을 통해 이수 가능하다. 취득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3년으로 시작 후 3년 안에 취득해야 하며, 시험 유형은 1과목당 40문제로 4지선다형, T/F, 단답형, Matching이 각각 10문제 출제된다.

주요업무로는 전시에 관한 기획부터 구성, 유치,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시회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하는 총감독 역할을 한다.

<표1> CEM(전시기획사)의 주요업무

단계	주요 내용
전시기획 (전시사업계획)	· 전시관 기획 및 계획 · 시장조사 및 부대행사 준비 · 전시기획, 컨셉, 스토리텔링, 연출
구성단계 (전시디자인설계/제작)	· 전시공간 디자인, 설계 · 영상 및 콘텐츠 제작 연출 · 공간 색채, 구성, 조명, 음향 디자인 · 전시매체 설계, 시스템 통합
유치단계 (전시마케팅/홍보)	· 인쇄, 홍보물 제작 및 운영위원회 구성 · 사인물, 모형 디자인 및 제작 · 전시물 유지보수 · 실내외장공사 관리(전기, 배관, 배선) · 유치 홍보 및 전시회 개막준비
운영단계 (전시운영/관리)	· 전시관 행정, 경영, 운영, 관리 · 유물 전시, 보존, 복원 · 전시안내 설명, 교육
결산단계 (사후관리/평가)	· 전시결과 결산 및 차기전시관 안내

<표2> 미국 전시기획사 자격제도

국가	미국
자격제도명	전시기획사 (75시행) CEM: Certified in Exhibition Management
기관명	국제민간전시협회 IAE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xhibition Management
시행 목적	전시회와 관련된 교육적, 실무적 지식배양
시행시기 및 기간	년 2회 실시

응시자격	총 9개의 교육과정을 이수(7개의 의무과정과 5개중 2개의 선택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첫 번째 시험 합격 후 3년 이내에 나머지 시험 통과해야만 함. - Exhibition Management 분야에 있어 최소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자격 취득 후 2년마다 2과목의 시험을 통과하여 재인증(recertification) 필요
시험 방법	과정이수와 시험
시험 및 평가 과목	교과과정 필수과목 7개 - 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 관리능력) - Site Selection (전시장 선별 운영) - Floor plans & Layout (전시장 셋팅 및 배치 운영) - Attendance Promotion (참관객 관리) - Service Contractors (서비스 지원업체 관리) - Event Operations (행사 운영) - Exhibition Space Sales (전시장 판매) 선택과목 2개 - Show Development (전시회 발전 방안 연구) - Developing a Prospectus (마케팅 전략 방안) - Developing an RFP and outsourcing(지원업체 개발 및 실행) - House & Transportation(호텔 및 수송 관리) - Basic Conference & Meeting Planning (컨벤션 기획 기초) - Business of Running Your Business (경영관리) 이수자 재교육 고급과정 - Legal Aspects of Running an Exhibition (전시운영규범) Security & Crisis Prevention(위기관리) - Understanding Adult Learning(고급 과정 교육 이해) - Registration(등록처리)
자격증 유지 및 갱신 기간	갱신제 (매 3년마다)

3.1.2. 특징 및 시사점

CEM은 전시산업에서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한 주요한 과정이며, 전시기획자들이 CEM과정을 통해 전시산업의 전문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초기에는 실무 경험과 회의서비스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어 교육하였으나 최근에 자격증의 수요가 늘어나며 자격요건이 더 강화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CEM 자격증은 더 권위를 얻게 되었다. 오늘날 CEM 자격증은 전시산업에서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으며 자격증 소지자는 자신이 전시 산업의 전문가임을 입증한다.

CEM 교육의 장점은 전시회 운영시 가장 필요한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의 정통한 전문가들이 수업을 담당한다. 심사 방식으로 현장의 경험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중시하며, 관련 전문협회 및 단체에서 자격증 제도를 운영, 일정 수준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통한 새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며 3~5년의 자격증의 갱신제가 있다. 또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전시업계에서 자연스럽게 제도에 호응할 수 있는 정책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시 취업이 용이하고, 고객의 연봉

을 받는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다.

3.1.3. 국내 CEM 자격제도

COEX는 2002년도에 미국 IAEE의 국제 공인인증 전시전문기획사 자격제(CEM)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최초로 CEM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 한국전시주최자협회가 공동 주최하여 매년 2회 상하반기 각 3과목씩 운영하고 있다.

국제전시기획사는 3년 이상 전시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9개 교과목 수료 및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수여받으며 2009년까지 15개국으로부터 1,051명의 CEM을 배출했으며, 2008년에는 282명의 졸업생 중 한국은 21명으로 155명 중국, 84명 미국에 이어 3위에 랭크되었으며 2009년까지 배출된 CEM은 71명에 이른다.

국내 CEM의 문제점으로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시 관련 기업에 입사 특전을 받는 사례는 드물며 전시 경력 3년이 되지 않으면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3년이 되는 시점에 자격증을 준다. 또한, 강의 자체가 영어로 진행되고 미국 현지와의 용어 차이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수를 위한 비용이 높고 전체 과목 이수를 위해 최소한 1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계에 종사하는 인력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 위주의 이론 교육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장에서는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컨벤션 기획사 제도를 미국의 CMM 제도와 비교, 분석 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시업계에서 필요로 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자격증(안)을 제안 하겠다.

3.2. 컨벤션기획사 분석 및 문제점

3.2.1. 현황

컨벤션 산업의 성장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2년 4월 문화관광부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설 국가자격증 제도 “컨벤션 기획사 1,2급”을 도입하였고, 2003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하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자격증 제도의 시행은 초기에는 정부가 주관하고 이후 민간단체에 위임할 계획이 있으나, 여전히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컨벤션 기획사 1급은 일정기간 해당분야 경력을 갖춘 대졸출신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부처가 시행을 포기하여 배출되지 않고 있다. 2003년에는 최초 응시자가 3천명에 이를 정도로 초반 응시율은 높았으나 이후 최근 2009년까지 최초 응시자는 약 3~4백명 정도로 응시율이 큰 폭으로 감소된 추세이다.

<표3> 컨벤션기획사 검정현황2)

종목명	연도	필기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컨벤션 기획사 2급	2009	422	335	79.4	191	83	43.5
	2008	263	210	79.8	152	78	51.3
	2007	330	281	85.2	168	44	26.2
	2006	313	266	85	158	58	36.7
	2005	400	170	42.5	178	64	36
	2004	817	380	46.5	397	48	12.1
	2003	3,218	2,039	63.4	1,243	120	9.7
소 계		5,763	3,681	63.9	2,487	485	19.9

<표4> 컨벤션기획사 1,2급 자격기준

응 시 자 격	<2급> 1. 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5.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급>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 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대학졸업자 등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공통> 1.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검 정 기 준
시 험 과 목	필기 시험 <2급> 1. 컨벤션 기획실무론 2. 재무회계론 3. 컨벤션마케팅 <1급> 1. 컨벤션산업론 2. 호텔·관광실무론 3. 컨벤션영어
	실기 시험 컨벤션실무 (컨벤션 기획 및 실무제안서 작성, 영어 프리젠테이션) 컨벤션 실무 (컨벤션 기획 및 실무 제안서 작성, 영어서신 작성)

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검정현황 참고

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 <공통> 매 과목 100점 중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공통> 100점 중 60점 이상

3.2.2. 미국 컨벤션기획사 자격제도

국제회의 전문가 연합(MPI)의 컨벤션전문가자격증(CMM)은 CMP의 자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998년도에 만든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205개의 CMM교육기관을 두고 있다. CMM은 최초로 대학과 공동 개발한 인증제로 컨벤션기획사에 대한 인식향상과 잠재적 경력 개발 및 자격소지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이 특징으로 CMM자격을 소지하면 연간 단위로 CMM Publication Partner 잡지에 등재되고 대기업의 국제회의 관련 부서에서 실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격소지를 위해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입소자 격이 매우 엄격한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취득이 어렵지만 자격 소지 후에는 재정적, 사회적 대우가 보장되어 현직 경력자들이 이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미국 전시기획사 자격제도

국가	미국
자격 제도명	전시기획사 ('75시행) CEM: Certified in Exhibition Management
기관명	국제민간전시협회 IAE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xhibition Management
시행 목적	전시회와 관련된 교육적, 실무적 지식배양
시행시기 및 기간	년 2회 실시
응시자격	총 9개의 교육과정을 이수(7개의 의무과정과 2개의 선택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첫 번째 시험 합격 후 3년 이내에 나머지 시험 통과해야 함. - Exhibition Management 분야에 있어 최소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자격 취득 후 2년마다 2과목의 시험을 통과하여 재인증(recertification) 필요
시험 방법	과정이수와 시험
시험 및 평가 과목	교과과정 필수과목 7개 - 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 관리능력) - Site Selection (전시장 선별 운영) - Floor plans & Layout (전시장 셋팅 및 배치 운영) - Attendance Promotion (참관객 관리) - Service Contractors (서비스 지원업체 관리) - Event Operations (행사 운영) - Exhibition Space Sales (전시장 판매) 선택과목 2개 - Show Development (전시회 발전 방안 연구) - Developing a Prospectus (마케팅 전략 방안) - Developing an RFP and outsourcing(지원업체 개발 및 실행) - House & Transportation(호텔 및 수송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ic Conference & Meeting Planning (컨벤션 기획 기초) - Business of Running Your Business(경영관리) 이수자 재교육 고급과정 - Legal Aspects of Running an Exhibition(전시운영규범) Security & Crisis Prevention(위기관리) - Understanding Adult Learning(고급 과정 교육 이해) - Registration(등록처리)
자격증 유지 및 갱신 기간	갱신제 (매 3년마다)

3.2.3. 미국과 한국의 컨벤션 기획사 차이점

미국의 자격제도는 협회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격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는 정부가 인가하여 공인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응시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구체적인 것은 미국과 비슷하지만 미국은 국제회의에 대한 경력을 요구하며 증빙과 결과물에 대하여 점수를 가산하여 기획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중시하고 국내는 자격시험의 결과를 중시한다. 아래 표는 미국과 한국의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을 상세하게 비교한 표로서 양국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다.

<표6>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에 관한 비교3)

	미 국	한 국	비 교
시행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벤션 전문가들에게 전문적 사고와 행동에 관한 교육 · 국제적 컨벤션 기획사로서의 인증 자격 · 잠재적 경영의 개발 ·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제회의 산업부분 인력자원 개발 · 국제회의 산업육성의 기반 구축 · 전문가의 확보로 국제회의의 국내유치와 개최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 · 미국은 이미 형성된 컨벤션 기획사들의 능력 개발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자격증이 생긴 반면 한국은 컨벤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을 함
운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벤션 기획에 관련된 협회를 중심으로 컨벤션 기획사에 대한 교육과 자격증 교부 · 대학과 연계한 학점 이수 제도 · 자격증 갱신 제 (최소 3년 최대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인증 자격증 · 한국 인력관리공단에서 연1회 자격증 시험 실시 · 응시자격요건에 맞으면 누구나 응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협회에서 운영 되는 민간자격증으로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통한 재인증 시스템의 운영
심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의 참가와 운영에 대한 경험 · 국제회의의 관련 에세이 제출 · 재교육으로 인한 재 인증 · 컨벤션 기획사 협회의 가입유무와 활동경력 · 경력 증명 가능한 결과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2가지 방식으로 실시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 시 자격증 획득 · 필기시험 합격자가 실기시험 불합격 시 2년간 유효기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현장의 경험과 자기 개발을 중시하는 심사 방식 · 한국 이론 교과 과목 중심적 테스트 현황(실기시험도 이론에 가깝다)이며, 일정 점수의 획득에 중점을 둔 절대평가도 국가에서 만든 자격 요건만 충족

3) 컨벤션 기획사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컨벤션학 전공, 이춘섭, 2006. p.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교육과정 참여 유무 · 관련업체 공헌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면 자격증 취득 가능
사회 인식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이 용이하다 · 변호사 자격증 만큼 재정적, 사회적 대우가 높다 · 고액의 연봉을 받는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 · 관련업체나 협회에서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의 대한 홍보와 자격증에 대한 수준의 향상으로 컨벤션기획사의 인식을 고취

교육프로그램을 비교하면, 미국은 우선적으로 각각의 시와 카운티, 주정부에서 컨벤션, 관광, 전시 등에 필요한 관리, 개발, 홍보와 마케팅에 관하여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다. 국내는 개발이나 홍보 등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는 주최 측에서 이루어지며 협회나 기업체에서는 기획사에게 개최지 선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요청이 대부분이다.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기획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보니 회의 전 단계에 대한 기획사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회의 기획안에 대한 실행과 회의 중에 발생 가능한 위기관리와 대처능력으로써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고 있으며, 각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격증에도 포트폴리오나 본인이 참여한 회의 기획의 에세이가 없으면 응시 자격조차 부여 하지 않고 있다. 국내는 주최 측에 제출하는 회의기획서 작성요령과 컴퓨터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및 국제회의 자체가 해외 참가자들이 다수인 관계로 컨벤션에 관련된 영어 커뮤니케이션과 영어 서신에 관한 교육이 교육기관에서 주요 교육 교과과정으로 취하고 있다.

미국 교육과정 중에는 협회관리라는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재정, 경영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로 들어있고 차기의 회의개최까지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획사를 양성하도록 한다. 국내는 예산이나 결산에 관한 교육은 각 강사들의 Know-how로 강사들도 알려주길 기피하고 교육기간에서 예산이나 가격에 대한 교육은 가시적이거나 보편화된 가격을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참가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방법과 예산 진행보고서 작성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7> 컨벤션 기획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미국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비교해본 한국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나 경영, 마케팅에 관한 교육이 없다. · 서비스에 관한 교육이 없다. · 이론에 치우친 교육이다. · 현장 실습교육이 아닌 이론적 학습의 교육이다 · 컴퓨터와 제2외국어에 대한 교육이다 · 실질적 현장 운영에 대한 교육이 아닌 현장 도우미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 차기회의를 염두 해 둔 교육이다

가)
나)

3.2.4. 컨벤션기획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실행 초기에는, 컨벤션 산업을 미래의 전략사업으로 인식하고 자격제도를 시행 하였으나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제도의 정착, 자격기준, 시험제도,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 국회인사규칙에 의한 특별채용 요건, 군인 부서관 임용, 경찰공무원 임용 시 특별채용 등의 우대현황들이 있으나 컨벤션 기획사 자격에 부합되는 우대사항은 갖춰져 있지 않다. 정부 주도하에서 운영되는 자격제도는 획일화된 자격요건만을 충족하면 누구든 접수만으로도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취득 후에도 자격증 취득자들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내 교육기관의 교육은 컨벤션 기획사 2급의 시험 과정 중 컨벤션 산업론, 컨벤션 영어, 호텔·관광 실무론까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용적 교육이 아닌 이론적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국제인증자격증 제도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자격증이 없어도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어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크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인가한 공인자격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협회·관련업체 등의 인식과 홍보부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기기와 교육기간이 부족하고, 자격증에 대한 신뢰성,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업체·단체의 인식, 지원 부족 등 업체와 협회의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4. 전시전문자격증 구축방안

4.1. 전문자격증 개설 위한 선결과제

자격제도 연구는 선례의 실패 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별도 자격증만의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한다. 자격증 자체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인력개발 및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완료한 후에 개설해야 한다.

본 자격증(안)은 전시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자 가운데 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격증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협회 및 정부기관은 물론 대학(원) 과정 및 민간 교육기관 까지 전시전문자격증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한 바를 정리하여 자격증 개설을 위한 선결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증의 도입이 산업계의 전시인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산·학·간 수요와 공급의 예측, 제도 실행의 타당성 검토, 타 부처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산·학·관 합동 TF팀의 공

동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산·학이 병행하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을 하고 산업계와 컨소시엄을 통하여 현장실습 교육을 내실화하고 이론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전문교육을 구현함으로써 산업계에서도 자격제도를 정당한 경력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자격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는 기관이 주체가 되고 자격요건은 전시 관련 분야의 경력자나 취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취기관은 자격증 취득자들의 취득 후 관리 및 운영 등 홍보와 마케팅에 중점을 뒀다 한다.

넷째,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여 특별채용 등 자격에 부합되는 우대사항을 적용하고 취업 시 가산점, 경력인증, 자격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전문자격증이란 인식을 업계전반에 확고히 하고 엄격한 규정을 통해 자격 소지 후에는 재정적·사회적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4.2. 로드맵 및 추진(안)

국내 최초의 전시관련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전시업계의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주관기간이 되어 처음에는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되, 자격증의 필요성 및 활용정도를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추진, 명실상부한 전시전문자격으로 자리매김 한다. 민간자격증은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관리자가 되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므로 전시분야에서 전시전문자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초기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한 후 단계별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추진하여 전시 전 분야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공인 자격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9> 전시전문 자격증의 추진방향

자격증의 실무능력 검증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에서 일정 부분을 나누어 출제위원을 구성하고, 문제 출제시 출제위원들이 합숙을 통하여 출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 시험 응시자는 응시비용을 부담하여 시험출제 경비의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고 응시자의 부담을 감안한 정부의 일부 비용 지원도 필요하다. 자격증 취득 후 연수기관에서 일정기간 연수 이후에 자

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전시 실무에 바로 투입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이 취업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유관기관에서 고용 우선 조건,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정착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격제도 갱신제를 통하여 3년 또는 5년에 한번씩 활동에 대한 심사를 하고, 세미나와 재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주기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격소지자의 자질 향상을 유도한다.

전시산업의 특성상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는 바 전시기획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원 시 일정수준 이상의 외국어 성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예 : TOEIC 700점이상) 또한, 과목별 과락 제도와 급수를 두어 자격증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며, 합격률을 일정수준 이하 또는 일정 숫자로 선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국내 전시산업은 정부의 전시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최근 들어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시전문인력의 육성은 전시선진국과 비교하여 미흡한 상황이다. 향후 경쟁력을 갖춘 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능력, 기술력 발전 등 여러 전시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전시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전시에 관한 종합적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시전문인력 육성 방안으로 산업의 전문인력임을 인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전문자격증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의 전시기획사 제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연구이기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미국의 CEM과 함께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컨벤션기획사 제도의 사례를 비교하여 전시전문 자격증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향후 전시전문 자격증을 활성화 시키기 방안으로는 첫째, 산·학·관이 공동 참여하여 이론과 실무와 융합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을 실시하여 자격시험에 적용되어야 하며 둘째, 자격증 시험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취득 후 실전에서 적용 가능한 실전형 시험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셋째, 전시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후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듯이 전시전문 자격증 도입의 필요성은 업계 전반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전시전문 자격증 제도 도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사자격증인 컨벤션기획사 자격증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외국의 전시기획사 제도를 연구하여 전시기획사 자격증 제도의 로드맵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훈 외.(2007). 전시과학전문가 양성사업안 연구.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전시과학전문가 양성센터.
- 김봉석 외.(2005). 해외전시산업 통계조사.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홍선의.(2008). 우리나라 무역전시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 김봉석.(2005). 독일의 무역전시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독일 정부의 해외전시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학회.
- 김동림 외.(2008). 컨벤션 기획 및 전시 전문인력 양성사업. 노동부지정 한국산업 능력 개발원.
- 전봉주.(2005). 전시기획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국제회의 산업학과 국제회의의 이벤트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 황희곤 외.(2008).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 <http://www.akei.or.kr>
- <http://www.coex.co.kr>
- <http://www.seri.org>
- <http://www.q-net.or.kr>
- <http://www.aeo.org.uk>
- <http://www.iaee.com>
- <http://www.ufi.org>
- <http://www.tsea.org>